

이노비즈協 “성장 잠재력 큰, 기술 스타트업 적극 육성”

‘제5회 INNO-Wave IR 개최

4대1 경쟁률 속 5개 스타트업 IR 혁신기술·비즈니스 모델 집중 소개 투자기관과 후속 연계 지원도 추진 鄭 회장 “성장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INNO-Wave IR(INNOBIZ Scale-up IR)’ 행사만 어느덧 5번째다.

이노비즈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제5회 INNO-Wave IR’을 개최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올해 IR 행사의 경쟁률은 4대1로 무척 뜨거웠다. 그만큼 새로운 성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협회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기업들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연구소 기업 등 기술 스타트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제5회 INNO-Wave IR’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이상창 기보 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한 이날 행사에는 일리아스AI, 와이파워원, 큐로텍, 엣지크로스, 커넥트브릭이 참석해 기술력 등을 뽐냈다.

IR 기업 평가에는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 지비벤처스, 블리스바인벤처스 등 13개 투자기관이 함께했다.

일리아스AI(Ilias AI)는 ‘세상의 모든 냄새를 디지털이정에 체계화·시각화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냄새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시작한 회사다.

고범석 일리아스AI 대표는 “냄새를 어떻게하면 데이터로 만들까하는 의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적으로는 지능형 후각 AI 기술 기반의 ‘디지털 마약견’ 등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보안 시장을 가장 먼저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파워원(wipowerone)은 ‘끊김 없는 자율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로보택시 무선충전 시스템 등을 선보이고 있다.

조동호 와이파워원 대표는 “피지컬 AI 시대에선 끊기지 않고 무인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와이

파워원은 AMR(자율이동로봇)부터 로보택시까지 피지컬 AI 이동체에 무인으로 끊임 없이 무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창업한 큐로텍(CUROTEK)은 골든 시니어 시장, 재가 요양 시장, 아파트 컨시어지 시장이 타깃이다. 대표적인 ‘컨시어지 헬스케어 플랫폼’의 경우 피보호자에게 심근경색,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파악,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엣지크로스(EdgeCross)는 ‘세상의

모든 기계에 지능을 더해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미션을 갖고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MachineGPT’가 대표 제품이다.

생산 현장에 이 솔루션을 적용하면 ▲기계의 현재 동작 상황에 대한 실시간 요약 보고 ▲이상 상황 탐지 AI 모델 생성 및 적용 ▲기계 동작 실시간 모니터링 지시 후 이상 상황 발생 알람 수신 ▲비숙련 운영자 또는 외국인 운영자를 위한 교육 기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커넥트브릭(Connectbrick)은 AI 마케팅 콘텐츠 생성 솔루션 ‘젝터스튜디오’를 선보이고 있다.

장홍석 대표는 “젝터스튜디오는 키워드 인식을, 제품 인식을, 한글 인식이 뛰어나다”면서 “제품 사진 1장으로 학습없이 1분만에 커머스용 사진을 완성하는 등 한국의 커머스 이미지 품질을 AI로 학습해 글로벌 수준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노비즈협회는 IR 행사 이후에도 발표기업과 투자기관 간 후속 미팅을 지원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내 철강업계, AI기반 품질 경쟁 나선다

전기로 확대 속 ‘스크랩 쟁탈전’

현대제철 AI선별·파쇄로 품질 강화 포스코 검수 모델로 위험스크랩 차단

탈탄소 시대 전기로 비중이 커지면서 글로벌 철강업계의 ‘스크랩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구리 등 유해 원소 함량이 낮은 A급 고품질 스크랩 확보가 원가·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면서 국내 제강사들도 인공지능(AI) 검수 시스템과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황성두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저탄소원료연구팀장은 지난달 ‘스틸코리아 2025’에서 오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2100만t의 스크랩이 부족해지는 반면 저등급 스크랩은 5500만t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A급 스크랩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최대 스크랩 사용 업체인 현대제철은 오는 2032년까지 1700억 원을 투입해 슈레더 설비와 AI 기반 선별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포항공장과 당진제철소에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한 직원이 에코아크전기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선별 라인을 설치하고, 경기 남부권에는 파쇄-선별-정제 공정을 갖춘 원료 고도화 설비를 오는 2027년 착공해 2028년 가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포항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일반 스크랩을 A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R&D도 병행하고 있으며, 대책과제를 통해 구리 함량 0.20% 이하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AI 기반 선별·분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도 전기로 전환과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대비해 AI 기반 스크랩 검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스크랩 형상·혼입 이물 등을 자동 판별하는 AI 검수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공급처·지역별 이력 데이터와 결합해 위험 물량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철스크랩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국내 스크랩 사업권을 직접 이관했다.

동국제강도 고급 스크랩 확보 전략을 검토 중이며, 대한제강은 지난해 L G CNS와 합작법인 ‘아이모스(AIMOS)’를 설립해 AI 비전 기반 자동 등급 판정 솔루션을 도입했다. 수십만 건의 이미지·성분 데이터를 학습한 시스템을 통해 KS 기준에 따라 스크랩 품질을 자동 판정하고, 국내 최대 스크랩 유통사인 에스피네이처와 협력해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OECD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조강 제조의 스크랩 투입 비중이 현재 약 30%에서 오는 2050년 45~5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스크랩의 전략 자원화를 지적했다. 중국(수출세 40%)과 러시아(약 15%)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LS전선,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획득

韓 전선업계 최초 ZWTL 기준 충족

LS전선이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UL로부터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ZWTL: 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복합 소재 사용 비중이 높아 폐기물 분류, 재활용 난도가 높은 전선 제조업에서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기준을 충족한 것은 업계에서도 드문 성과다.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인증은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매립이 아닌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 회수 방식으로 처리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국제 인증이다. 특히 구미사업장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도는 95% 이상의 자원순환율을 기록해 최고 수준인 ‘골드’ 등급을 받았다.

전선 제조업은 금속, 플라스틱, 절연 유 등 다양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는 복

합 공정 산업으로,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체계 구축 자체가 쉽지 않다.

LS전선은 이처럼 복잡한 공정 구조에서도 사업장별 분리배출 기준과 재활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폐기물 발생부터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해 ZWTL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HDPE, PVC 등 합성수지류는 소재 특성상 재활용하기 어려운 대표적 품목이다. LS전선은 소재별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재활용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해, 기존에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던 비중을 대폭 줄였다. 또한 LS전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프로필렌(PP) 절연 소재 케이블을 한국전력과의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한 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시멘트업계, NOx 저감 SCR 현장 시연 성공

아세아 제천공장 SCR 시범가동 완료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 환경설비 현장적용 결과 확인

시멘트업계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시멘트 생산을 위해 저감설비 모색에 더욱 적극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9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시멘트 제조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SCR(선택적촉매환원설비,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오염물질 저감 등 시멘트업계의 주요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저감에 필요한 환경설비 SCR의 현장적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유니온 등 시멘트업체 대표이사과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 SCR의 가동 및 효율 여부를 점검했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산업통상부의 국책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약 362억원을 투입해 SCR을 설치했다. 2023년 12월 설치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시범 가동을 마친 후 가동을 본격화했다.

/김승호 기자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시 과징금 3배

내년 6월 전통시장법 개정안 시행 지원 중단·재가맹 제한 기간 확대

내년 6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도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유형 명문화 및 제재 강화 ▲가맹점 관리 체계 개선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다. 취약상권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정유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매장 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기존 가맹점이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약용 사례가 명문화되고 부정 유통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김승호 기자